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화엄의 신통력으로 멀리보고...

초의와 추사와 관련이 있었던 승려들은 상경하는 길에 초의의 편지와 차 꾸러미를 추사에게 전해 주었다.

특히 운구는 추사의 과천시절, 일 년을 함께 지냈던 승려인데, 이러한 사실은 1853년 12월 16일에 쓴 추사의 편지에 '근일에 운구와 함께 지냈던 일 년은 흡족했습니다' 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그는 아마 초의와 추사와 가까웠던 대홍사 승려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한민(漢旻)이고, 금강경과 능엄경에 밝았다. 그를 추사에게 소개한 것은 권돈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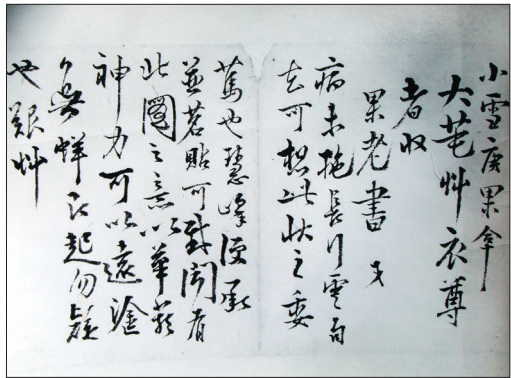
따라서 그는 추사와 학문적 담론이 통했던 학승으로, 추사의 불경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추사는 그가 떠난 뒤, 몹시 쓸쓸해하던 중, 반가운 인편이 도착했으니 그가 바로 혜봉이었다. 이미 추사와 혜봉은 면식이 있었던 처지인데 고대하던 초의의 편지와 차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추사가 '위안이 됩니다' 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략 1853년 12월 말이나 1854년경에 보낸 편지로 여겨지는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운사 초의스님 받으시오, 과노가 법식을 갖추어 씁니다.

병으로 먼 길 행차를 나서지 못했습니다. 운구 스님은 떠났으니 내 상황의 쇠락과 성함은 짐작이 될 겁니다. 혜봉 스님 편에 차를 부쳐주셔서 위안이 됩니다. 이번에도 모하시느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엄의 신통력으로 멀리 볼 수 있고 탈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일일) 시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간단히 씁니다(大菴神衣尊者收 果老書)



혜봉 스님 편으로 초의 스님이 보낸 편지에 화답하는 추사의 편지

초의, 추사의 건강 기원하며 차 보내

추사, 노쇠해 지지 않기를 소망

式 病未拖長行 雲句去 可想此狀之委篤也 慧峰便承 茗點 可慰 聞有此圖之意 以華嚴神力 可以遠鑒無鮮 即起勿疑也 艱神

당시 추사의 건강 상태는 원만하지 않았던 듯하다. 먼 길을 떠나지 못했다는 그의 말은 이런 정황을 짐작케 한다. 더구나 초의는 이미 운구를 통해 추사의 근황을 들었을 터이다. 그가 '내 상황의 쇠락과 성함은 짐작할 수 있을 것' 이라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리라.

늘 서로를 잊지 않았던 벗, 초의가 보낸 차와 편지는 추사에게 가장 큰 위안거리였다. 아마도 초

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지 추사는 '화엄의 신통력으로 멀리 볼 수 있고 탈이 없을 것' 이라는 기원과 함께 '이제 (일일) 시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격려를 보낸다. 운구와 함께 했던 추사는 '근일에 운구와 함께 지냈던 일 년은 흡족했습니다. 운구와 함께 노쇠해지지 않기를 밤낮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목에서 그의 흡족한 일상이 전달된다. 당시 운구와의 이별이 못내 아쉬웠던 추사는 <중운구상인(贈雲句上人)>을 지어 전별의 뜻을 이렇게 전했다.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로다(山山水水 隔山隔水) 바닷바람에 물병 하나, 바람에 하나(春風一瓶鉢) 바다를 한 없이 건너가고(紆白勞漫汗) 푸르게 물들인 듯한 봉우리, 높이도 올라간다(結戀巖巖)

서구와 북쪽의 울탄에(西陲北鬱單) 질그릇 바퀴처럼 막힘없이 돌아가네(陶輪無遮礙) 육정(六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情根根何處) 머뭇거리며 차마 이별하지 못하는구나(不忍別)

서구는 수미산 서쪽에 있는 큰 주의 이름이고, 울탄 또한 북쪽의 지명이다. 질그릇 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월, 정(情)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있기에 서로의 이별이 이토록 아쉬웠던 것일까.



박동준(중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지성·대중·생활불교로 새 불교운동 나서야”

박호석 법사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전 농협대 교수)

“불교에 젊음이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의 20대 젊은이들이 불교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군법회만 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절에 오는 장병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사찰에 다녔기 때문에 불교를 알게 된 그런 사람인데, 젊은이들이 이해하는 불교는 49재, 제사 이런 것들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국불교가 삽니다.”

늘 한국불교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가 있다. 바로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박호석 법사(前 농협대 교수·66). 특히 그는 한국불교가 젊음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군대인데 불교계가 군포교를 소홀히 대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불사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 대출까지 받으면서 군법당 4개를 건립하고, 매주 군법당에서 법회를 주관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등 군포교 사각지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불교지명이 사라지는 것을 교계에 알렸으며, 2013년에는 전통문화 훼손을 이유로 헌재재판소로 도로명주소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해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이런 신념은 1969년 탁산 이한상 거사가 이끄는 삼보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길러졌고, 40여 년간 불교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박호석 법사를 대한불교삼보회 제7대 이사장 취임식을 사흘 앞둔 지난 2월 13일에 서울 정릉 삼보정사에서 만났다.

가톨릭 장군 부탁으로 군포교 시작

충북 괴산 출신의 박호석 법사는 집안 대대로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 집안에서 자랐다. 집안의 종손이기도 한 그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강했는데, 충북대학교 재학시절 정주 뒷산 우암산 용화사에서 환성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불연을 맺었다.

환성 스님은 당시 물리학과 반아심경을 연결해 설명하곤 했다. 이공계를 전공한 박 법사는 법문이 너무나도 잘 이해됐고, 불교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말마다 용화사를 찾았고, 자연스레 충북대 불교학성회에 가입해 1970년에는 충북지방장까지 맡았다.

충북대 불교학생회 활동을 할 때에는 열심히 전법활동을 했다. 당시 충북대가 단과대학 시절로 전교생이 8백 명이었는데, 무려 200명을 불교학생회 회원으로 만든 것이다.

박 법사가 군포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2년 특전사령부에 배속돼 군복무를 할 때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마저 없던 부대 실정을 바로 잡아 누에 치는데 사용하던 사단사령부 강당을 법회에 활용하고, 불교군중사병으로 임명돼 사령부 법회와 예하부대 군중교육을 주관했었다.

그는 “아마도 이것이 사병이 군승의 업무를 대신한 육군 초기의 불교 군중병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공학 가운데서 농업기계를 전공한 박호석 법사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77년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실에서 10년 간 농공연구사로 재직했다. 중간에는 프랑스 국립 파리농학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1991년부터 12년간 농협대학 농공기술교수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농기계 전문가로 활동했다.

박호석 법사가 군포교 활동에 전념하게 된 것은 교수직을 퇴임한 이후 부터였다.

2003년 대학 퇴임 후 집필과 연구활동에 전념하던 박 법사는 2006년 쯤 우연치 않게 동네인 고양시 삼성동 뒷산에 소재해 있는 육군 제1공병여단에 법랑사라는 군법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해 부처님오신날에 연등을 달러 군법당에 갔다가 그만 군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죠. 큰절보다는 작고 어두운 법당에 등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가톨릭 신자인 여단장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이곳 불교 법당에 법회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이곳에 나와서 교수님

께서 법회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요. 참, 거절을 할 수 없었더라고요. 불자도 아닌 가톨릭 신자인 여단장의 부탁을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법사는 같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법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월 2회만 법회를 진행했다. 2008년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법랑사에는 매주 정기법회가 열렸고, 참석인원도 평균 20여 명에 머물던 것이 80~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교수출신 법사의 법문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11보급대 안국사의 법회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박 법사는 심미도 회생자와 군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안국사의 법회를 활성화시켰다. 또 15명의 낯고 비좁은 공간에 최대 수용인원은 30여명에 불과했던 낙후된 법당을 가수 송춘희 씨가 1억을 기탁하는 등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법랑불사를 완성했다.

“한 번에 두 군데 법회를 보게 되니 일이 많아지면서 감당이 되지 않더군요. 대불련총동문회 출신 가운데 희망자를 뽑아 군포교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군법사지원단장을 맡은 박호석 법사는 11보급대 안국사 불사에서 남은 모연금으로 1사단 12연대 석불사, 9사단 수석대대 영축사, 철원 5포병여단 105대대 비룡사 등 3개의 군법당 불사를 더 진행했다. 불사에 전념하는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고생하기도 했다.

“말도 못하고 몸 반쪽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죠. 그런데 부처님 일을 더 하라는 뜻인지, 지금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 부처님의 가피

삼보장학회 장학생 이후 40여년 불교활동

퇴임 후부터 본격적으로 군포교 활동 시작

불사금 부족엔 대출까지... 4개 군법당 건립

도로명주소 위헌소송... 불교 지명은 문화유산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지명사전> 출간

“삼보법회 명성 되살려 정법수호·바른수행”

죠. 또 신기한 것은 불사를 할 때마다 항상 불사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딱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더군요.”

현재 박호석 법사는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민간인 성직자로 제 8350부대 안국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으로 불교지명 사라져

박호석 법사가 불교용어로 된 도로명 주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부터였다.

“하루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한 목사가 기독교계 신문에 매월 1회 연재하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심검’ ‘전생’ 등 이런 말들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니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죠. 아니, 평소에도 자주 쓰게 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입을 열고 사나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이 동국대 도서관에 가 교계 신문을 살피고, 이회승 국어학자가 저술한 4000페이지 분량의 <국어대사전>을 두 달에 걸쳐 샅샅이 읽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는 300여 개. 여기에 불광출판사와 1년 반 동안 작업하면서 총 600단어를 찾아 2011년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지명사전>(불광출판사 펴)을 출간했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서 박호석 법사는 불교식 지명이 사라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전국에 현존하는 불교지명은 어



현재 박호석 법사는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민간인 성직자로 제 8350부대 안국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중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탁 - 혜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건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별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건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중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박호석 법사는 ... 1975년 충북대학교 농공학과 졸업. 동대학원 농학 석·박사졸업(1988).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농공연구사(1977~1991). 농협대학 농공기술과 교수(1991~2003). 프랑스 국립 파리농학연구원 객원연구원(1984~1986). 농민신문 논설위원 역임(1993~2007). 1968년 불교에 입문했으며, 이듬해 삼보장학생으로 선발됐다. 1970년 대불련 총복지부장을 맡았으며, 2007년부터 육군 제1공병여단, 제3군수지원사령부, 제11보급대대, 탄약대대 등 9개 군법당에서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11보급대대 안국사와 12연대 석불사, 수색대대 영축사, 호국비룡사 군법당 건립에 공헌했다. 현재 대한불교삼보회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지명 사전>(오직 지금뿐) 등의 저서를 저술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시간한 불교용어가 모두 있을 만큼 그 종류만도 5백여 가지를 훨씬 넘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제(巨濟), 보은(報恩), 안양(安養), 영광(靈光) 등과 같은 시군구(市郡區)의 이름도 있고, 가야(伽耶), 보문(普門) 등과 같은 읍면(邑面)의 이름, 그리고 수백 가지가 넘는 리동(理洞)의 법정지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100여 년부터 많게는 천 년이 넘게 지역의 이름이자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징표로 역사와 함께 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의 시행과 함께 미륵과 아미타불을 뜻하는 서울 강북구의 미아(彌阿), 도선대사의 전설을 간직한 성동구의 도선(道詵)이란 법정지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호석 법사는 이를 보면서 종교편향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주도면밀한 작품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천 년을 써온 이름을 송두리째 없앨 계획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지난 해 6월 박호석 법사는 대한불교청년회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명주소법이 위헌이라며 대법청과 전 문화부장관 정동채 문화행정전문가 등 총 63명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신아법 무법인을 청구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소송장을 접수했으며,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2월 16일 제7대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취임 박호석 법사는 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재가불자 실행단체인 대한불교삼보회의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60~70년대 한국불교의 현대화·근대화를 이끌던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며 소감을 전했다. "정경의 표상인 승가공동체가 빛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다수 불교단체들도 바르셔서 못하고 있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모습은 낙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세기 전, 덕산 이한상 거사께서 한국불교 중흥을 지성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통해 이루고자 인재양성, 교육 포교에 헌신하셨던 그 목표와 열정



실미도 회생자와 군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안국사

이 절실히 요구되며, 2천 년 전 대승불교가 자기 이익만 쫓던 승단에 반발해 태동됐던 것처럼, 바로 지금이 제2의 대승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한국불교를 이끌고 진단한 박 법사는 "과거 한국불교중흥의 선봉에 섰던 삼보법회의 역량을 되살려 정법을 수호하고 올바른 수행과 전법을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960~70년대 서울 풍전호철 삼보회관에 매주 일요일 700여 명의 화원이 모여 법회를 보던 명성은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과거의 명성을 찾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모든 조식이 젊어질 수록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군포교 활동과 지난 해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을 통해 처음 배출했던 법사 제도를 강화해 군부대, 병원, 호스피스 등 보다 체계적인 포교와 업그레이드된 포교역량이 필요한 것에 지원 할 것입니다." 박 법사는 2년 전 안국선원에서 7일 간화선체험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꼈다. 그 인연으로 수불 스님으로부터 월공(月空)이라는 법호를 받은 그는 포교에 임하는 자세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진심에서 우러나오게끔 임하고 있다는 것. 그는 불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불자라면 불교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해 불교를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종교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불교는 기독교 카페 수의 1/5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불교 카페 가운데서도 무속, 점집이 포함된 것이 상당수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불자가 불교를 제대로 배워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삼보법, 사성제, 팔정도만 알면 되는 건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불교가 이런 형태로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주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들은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고급차 타고 도박하고 골프장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 진 것은 불자들의 책임이 큼니다." 이니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지난 해 박호석 법사는 대법청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명주소법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전법일기

대부분 남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군대' 하면 대화와 소통으로 풀여가는 조직이 아닌 "하면 된다", "하라면 해" 식의, 의견 수렴이 안 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군도 많이 바뀌었다. 군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답게 이곳에 살고 있는 병사들의 능력과 재능들이 각양각색, 무한한 곳이다. 어느 일요일, 법회를 마치고 간식을 먹고 난 뒤 법당을 나서지 않고 피아노를 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제법 실력이 좋았다. 그 병사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다가와 피아노를 쳐도 되겠냐며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들리는 피아노 선율은 앞서 친구의 연주보다 더욱 황홀했다. 대학교 시절 밴드 동아리에 있으면서 건반을 쳤단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병사의 한마디. "법사님, 저는 기타를 칠 줄 압니다." "저는 색소폰을 합니다." "어라? 이 분위기는?" "애들아~ 우리 법당 밴드 구성하자. 법사님이 바이올린을 조금 켜 줄 알거든. 각자 악기는 집에서 가져오고, 법당에 보관하고, 주말 이용해서 연습들하고, 어머니?" "좋습니다!!" 이렇게 단 10분 만에 작은 악단이 구성 됐다. 악단 이름은 우리절 통일사 이름에서 따온 '밴드 유니온'. 이후 이 밴드는 법당의 문화전령이 됐다. 어느 날 다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 '문화 전령단'을 이용해서 장병들과 민간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당에서 음악회를 열어볼까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도 산사 음악회 못할 거 뭐 있냐? 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절은 산사에 있는 것이 아니니 산사 음악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어차피

군법당에서의 '산사음악회'



그림·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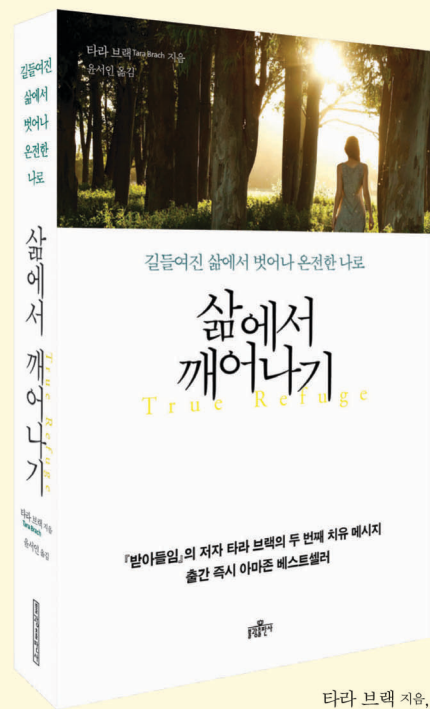
오순도순 법회에 오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소통하는 '조촐한 음악회' 엮기 때문에 별도로 음악회의 이름은 걸지 않았다. 음악회를 한다고 몇 주 전부터 법회 때마다 공지를 했는데 소문을 들은 보살님들이 주로 물어보는 것은 "거기 음악회는 어떤 가수가 초청되어 오느냐?"하는 것이었다. 아마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 면 체육대회 하듯 가수를 부르는 줄 알았나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초청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백의리 주민들 몇 분 오시고 원래 일요일법회 때 마다 오는 우리 병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음악회입니다. 손주들 학예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출연진으로는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노보살

님의 손녀 은지의 판소리, 통신대대 멋쟁이 오병장의 솔로 기타연주, 공병대대 정 상병의 색소폰 연주, 나도 바이올린으로 연주자로 가입한 유니온 밴드의 합주곡, 옆 동네 원불교 교무님의 아프리카 민속악기 쎬베 연주, 그리고 대대 군종병들이 열심히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 등 나름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관객도 예상을 훌쩍 뛰어 넘어 60명 법당에 백 오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세상에 드림 없는 밴드가 무슨 밴드냐고 하겠지만 이렇게 좌충우돌 산사 아닌 산사 음악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모든 참가자들의 가슴에 추억으로 남았다. 자신의 타고난 각양각색의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군대다. 이 속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을 뿐, 그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요일마다 법당에 나와 부처님 전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우리들이 군 포교를 사명으로,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가 공존하며, 젊음의 열정과 패기가 공존하는 군대, 그 속에서 살면서 법회를 마치고, 줄지어 돌아가는 장병들의 뒷모습을 본다. 먼 훗날 미래의 대통령 중 "군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당당히 "군 법당이 기억납니다. 군 법당을 통해 여러 활동도 하며 군 생활을 유익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꿈꾸며 오늘날도 법당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나를 믿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삶에서 깨어나기 True Refuge

2013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받아들임』의 저자 타라 브래크의 두 번째 치유 메시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흔들리는 인간관계, 위중한 질병,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외로움과 좌절 앞에 휘청거리는 당신에게 전하는 치유 메시지.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 있으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치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번쩍이는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 속에 삶을 대하는 선사들의 빛나는 통찰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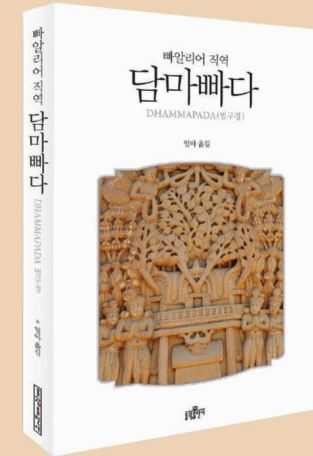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내공에 대하여 어른의 공식

최신간 장엔 저, 정이림 옮김 320쪽, 15,000원

『어른의 공식』은 인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선사들의 이야기 77편을 담았다.

정확한 번역, 간결한 문장, 손에 꼭 맞는 관형으로 만나는 빠알리 원전 번역 담마빠다(법구경)



빠알리어 직역 담마빠다 DHAMMAPADA(법구경)

최신간 일아 스님 옮김 224쪽, 12,000원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일아 스님이 수년에 걸쳐 공들여 작업한 담마빠다 번역의 정본!